

## [보도자료] 쿠팡, 경상남도에 3000억원 투자해 전국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이끈다

2021. 4. 6.

- 경상남도 지역에 4,000여개 직접고용 창출 기대 지역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 설립
- 경남 지역 고객경험 개선과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속
- IPO 이후 2번째 주요 투자로 전라북도 지역 최대 물류센터 건립 발표 10여일만에 추가 계획내

2021.

4. 6. 서울 - 쿠팡이 경상남도에도 물류센터

3곳을 신규 설립한다. 전라북도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 건립을 발표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진행된 추가 투자로,

IPO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쿠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부산진해자유경제구역과

체결한 MOU에 따르면 쿠팡은 창원 물류센터 2곳 및 김해 물류센터

1곳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상남도 지역에 4,000여개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총면적 180,000m<sup>2</sup> 이상의 경상남도내 최대

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하게 될 예정이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쿠팡을 경상남도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투자는 경상남도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및 농어민에게도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판로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쿠팡 경남권 물류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특히 협약식 이후에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 경상남도내 창업기업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창업자

성공을 위한 조언 및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해시와

창원시 등 지방도시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률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 내 성별 및 연령대별

고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쿠팡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전기차등 다양한 친환경 시스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지역 경제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쿠팡의 우선순위 였다”며, “창원시,

김해시 사례와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집중함으로써 쿠팡이 한국 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동시에 고객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쿠팡은 작년 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중 하나다. 어려운 시기지만 지금껏 해온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

본 보도자료에는 본건 투자의 기대 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쿠팡에 대한 잠재적인 투자와 관련된 명시적 및 묵시적인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은 쿠팡이 미국 1933년 증권거래법 제424조 제(b)항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Prospectus 최종본에 기재된 위험(risks), 불확실성(uncertainties), 가정(assumptions)에 따릅니다. 위와 같은 위험(risks), 불확실성(uncertainties), 가정(assumptions)에 따라, 본 보도자료에서 논의되는 장래 사건은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실제 결과가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에서 예상되거나 함축된 것과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에 의존하여 장래 사건을 예측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은 본 보도자료 발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쿠팡은 해당 일자 이후로 본 장래 전망에 대한 진술을 수정하거나 갱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nglish Press Release Link](#)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